대학생들이 인식하는 가족개념과 가족건강성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oncept and Family Strength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우송대학교 의료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박 수 선**

Dept.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Univ. of Woosong
Visiting Professor: Park, Su Sun

〈목 차〉

Ⅰ. 연구의 필요성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및 해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family strength and therewith, suggest some strategies to improve family strength and welfare.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sampled 208 college students and surveyed them for their perceptions of the concept of family and family strength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subjects on their perception of the concept of family, it was found that almost all of them (99%) perceived that 'a family consists of a couple and their children' (item 1). The other items regarding the concept of family chosen by the majority of subjects were 'a couple and adopted child' (item 3 & item 17), 'a remarried couple and their children' (item 9), 'a single parent and children' (item 2), 'a three-generation family; couple, widowed daughter and granddaughter' (item 4), 'three sisters' (item 7), 'an unmarried woman living with a son born from a sperm bank' (item 19), 'a separated couple with no child' (item 13), 'cousins living together' (item 11), 'a divorced man and his girlfriend with child' (item 15) and 'homosexual family' (item 8).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요약·정리한 연구임.

** 주저자, 교신저자: 박수선 (sunybono@empal.com)

Second, as a result of assessing subjects' needs for family functions and their efforts for family strengths, it was found that the family functions for family members scored higher than those for the society, and that subjects' efforts for the family functions conducive to both their family members and society scored lower than their needs for the family functions.

Third, subjects' needs and efforts for family function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family strengths. Namely, family functions were closely related with family strengths.

Key Words : 대학생(college student), 가족개념(family concept), 가족기능(family function),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s)

I.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는 세계사에도 유례없는 급격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겪으면서 그 압축적 변화의 이면에 가족주의 질서가 꾸준히 강화되는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계층과 세대를 막론하고 생존과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직체로서 기능해왔다(장경섭, 2009). 정보화 사회에 들어오면서 과거 권위주의적인 가부장적 가족주의는 도전을 받게 되어 가정내에서의 역할 구분의 경계가 점차 유연해졌으며(박길성, 1997), 가족형태가 달라지고 재구조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개념과 관련된 정확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양옥경, 2000).

이처럼 가족의 구성과 기능이 지속적으로 다양화되며, 강화된 가족주의를 갖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가족'에 관한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 보다 접근할 수 있으며, 가족정책 입안자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제안을 할 수 있고, 미래 사회의 가족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전망을 할 수 있다(유계숙, 유영주, 2002). 보편적으로 볼 때 가족에 관한 개념 속에는 형태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형태적 의미라 함은 가족이 어떤 관계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나 하는 것이고, 기능적 의미는 그것이 개인에게나 사회에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박민자, 1995). 따라서 가족개념을 연구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가족개념을 조사하는 연구들은 가족에 대한 이미지선택과 그 빈도만을 측정한 경우도 있지만(이정수 · 천혜정, 2005) 다수에서 가족개념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형태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를 포함시켜 연구하고 있다(양옥경, 2000; 2001; 유계숙 · 유영주, 2002; 조은숙 · 옥선화, 1995).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도 가족개념의 정의를 형태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로 함께 나타내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 말기와 성인 전기에 해당되는 대학생 시기는 정서적으로 성숙해 있고, 현실을 보다 사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이성교제도 할 수 있는 등 인간관계의 폭과 질이 변화하는 시기이다(이선정, 2009). 또한 결혼에 대한 욕구도 구체화되어가고 자녀 양육, 가정생활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이다. 대학생의 경우, 출생가족에서의 경험이 자신이 형성하게 될 미래 생식가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미래 가족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매우 중요한 대상으로 여겨진다.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가족관련 삶의 질을 측정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인으로 가족건강성을 들 수 있다. 가족건강성은 가족의 건강한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연구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 가족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자각아래 이루어지고 있다(어은주, 1996). 즉 인간은 가족의 정서적, 관계적 기능을 통해 안정감과 진정한 전인적 인간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존재이며, 인간의 사회성, 공동체성은 가족생활을 통하여 길러진다는 것이다(유영주,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성장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식된 가족개념과 가족건강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예방적 차원에서 출생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미래가족의 중심이며 새로운 가족문화를 형성할 대학생들에게 가족의 중요성 인지는 물론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둔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개념의 변화

현대 사회에서는 산업사회의 획일주의에서 다원주의로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이전보다는 가족유형이나 가족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 실제로 한국사회 역시 지난 20-30년간에 걸쳐 가족유형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박경란 등, 2001).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단일한 형태와 고정된 기능을 가진 가족보다 가족의 형태와 기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가족 형태나 기능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양옥경, 2001).

전통적인 시각에서 가족은 전형적으로 법적, 생물학적 유대, 그리고 동거면에서 정의되었다(Eliiot, 1986). 그러나 오늘날에는 '가족들(families)'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으며(Gubrium & Holstein, 1990), 전통적인 가족형태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구성에 대한 수용정도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규원, 1995). 젊은세대의 대표대상인 대학생들의 가족개념 인식관련 연구결과(김경원, 2005; 박수현, 2003; 양옥경, 2001; 이정수 · 천혜정, 2005)를 분석해보면 전통과 근대의 혼재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가족개념과 가족기능,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아도 유사한 결과를 알 수 있는데, 가족개념 인식에 관한 연구(김규원, 1999; 김경원, 2005; 남기철, 2006; 양옥경, 2001; 이정수 · 천혜정, 2005),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관한 연구(고정자, 2001; 오윤자, 2001)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가족을 혈연이나 귀속보다는 사랑과 애정으로 보고 있으며, 가족의 범위 역시 사랑에 기초한 확대영역으로 보고 있고, 의식적인 측면에서 수평적 평등의 속성을 보이고 있었다.

'서울시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 보고서의 결과에서도 응답자 2500명 중 49.9%가 '가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것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로 도우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19.5%), '조상을 같이하는 같은 피로 맺어진 사람들의 모임'(17.4%),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10.0%) 등의 순이었다.

가족기능 역시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으로 이에 대한 선행연구 역시 많지 않다(양옥경, 2001). 전통사회에 비하여 '생산기능', '출산기능', '성원들과 재산 보호 기능' 등은

약화된 반면, '소비 기능'과 '성욕 충족 기능'은 강화되었고,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 '자녀교육 기능', '애정교환과 정서적 지지·유대기능', '휴식처로서의 기능', '오락 및 여가 기능'은 실제로 기능이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부각되고 있다(김설희, 1983; 김승권 외, 2000; 한남제, 1997; 함인희, 2001). 또한 가족기능을 가족구조의 결과로 제시한 선행연구(Friedm an, 1986. 정성란(2005) 재인용; 정순복·김수진, 2001)와 명확한 경계선과 공평한 가족규칙, 명확한 가족원의 역할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설명한 연구(김유숙, 2006; 최희진·유영주, 2003)등이 있다.

한국가족 기능의 인식은 실제 수행도와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유영주(1990)가 서울, 소도시, 농촌을 망라한 전국 규모의 1,077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기능의 중요도 인식과 수행도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가족은 가족 기능의 중요도 인식에서 애정 및 정서와 관련된 기능을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반면, 수행에 있어서는 자녀사회화 영역에서 가장 높은 기능 수행도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배우자편의 친척관계 유지 기능, 경제적 협력 기능, 종교·도덕적 기능, 정서적지지 및 안식처 기능, 자녀교육 기능, 성과 애정의 기능, 본인편의 친척관계 유지 기능, 가계관리 기능, 애정표현 기능의 순으로 나타나 의식과 행동의 격차를 보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가족 기능 수행도는 30세 이하의 교육수준이 높고 종교를 가진 집단의 수행도가 가장 높았고, 가족 기능의 중요도 인식에서는 지역간의 차이가 나타나 서울은 자녀교육 및 사회화 기능, 소도시는 경제적 기능, 그리고 농촌은 친척관계 유지 기능을 중시하였다.

'서울시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2007)'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개인이나 사회보다는 가족의 관심과 안녕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개인의 관심보다 가족의 관심을 중요시해야 한다'와 '사회보다는 내 가족의 안녕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항목(5점 기준)에 각각 4.03점, 3.90점으로 평균 점수(3점)보다 높게 답했다. '어려운 일에는 이웃·친구보다 친척이 힘이 된다'는 응답도 3.57점이었다. 남편·부인의 역할에 대해 남편은 '생계 책임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68.6%), 부인은 '자녀양육을 잘하고 자상한 부모가 되는 것'(55.6%)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집안을 잘 통솔하는 것'(남편 15.2%, 부인 18.6%)을 꼽았다. 특히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나타냈다. 자녀를 경제적으로 돌봐줘야 할 시기에 대해 '대학교·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47.6%)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결혼할 때까지'(24.0%), '취업할 때까지'(14.3%) 등이 뒤를 이었다. 노부모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25.7%였다.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은 가족 전체와 성원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과거에 비해 강화된 가족의 소비기능은 가족의 생활수준이나 양식을 결정하고, 나아가 소비생활 수준이 성원들의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함인희, 2001). 또한 성원들의 소외현상으로 병리적이고 역기능적인 가족현상이 빈번하게 야기되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교육·보호·휴식·오락·종교 등의 기능 수행은 성원들의 심리적·정신적·문화적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안정화에 기여한다(조추용 외, 2001). 그러므로 가족개념 변화를 실제 내용과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이데올로기적 전통 가치관에 입각하여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결국 사회변화에 맞추어 어떻게 대응적인 변화를 잘 이루어내고 있는가가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이란 가족의 건강한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전서영 · 박정윤 · 김양희, 2008), Otto(1962)가 건강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원간 상호작용 유형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건강가족의 개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Otto(1962) 는 건강한 가족이란 가족생활주기를 거치면서 변화되며 가족성원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Pratt(1976)는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가족이란 가족원이 서로 다양하고 규칙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가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광역사회와 유대를 가지며, 가족원의 개별성을 고무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며, 문제해결 및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는 가족이라고 하였다. 호주의 가족강화스크랩북의 모델은 1999년 호주 뉴캐슬대학 가족행동센터(family action center)에서 가족건강성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로 8개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테마를 제시하였다. 즉, 커뮤니케이션, 소속, 함께 활동하기, 애정, 지지, 수용, 헌신과 책임 그리고 탄력성의 8개 영역이다.

가족건강성 관련 연구는 서구의 경우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국내에서는 2000년을 전후로 관심이 증대하였고,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전서영 · 박정윤 · 김양희, 2008).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1장 3조에는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로 정의되어 있다.

건강가족의 심리 · 사회적 특성에 대해서 그간 국내외 많은 학자들(서병숙, 1994; 어은주 · 유영주, 1995; 옥선화, 1995; 최희진 · 유영주 2003; Otto, 1962; Stinnett & DeFrain, 1985; Walsh, 1998)이 다양한 개념들을 제시해왔지만, 전반적으로 성숙한 가족관계와 원활한 가족과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가족건강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접근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족건강성은 크게 가족중심개입과 사회심리적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이혜경, 2008) 첫째, 가족중심 개입은 가족이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수용하고 지원해야 하므로 정상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결함이 있다거나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가족 스스로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족능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윤종희, 2006). 이것이 건강가족 관점이다. 결국 가족중심개입과 건강가족 관점은 같은 맥락에서 시작한다. 특히 건강가족은 부모와 자녀관계 또는 형제-자매 관계 중심보다는 가족전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중심, 가족전체를 위한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건강가족은 가족의 사회심리적 관계로 요약가능한데 건강한 가족은 가족원의 개별성을 인정하면서도 가족원간의 유대와 결속을 도모하고, 분명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며 가족문제나 위기를 잘 해결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가족 공통의 가치관과 규칙이 있다는 것이다. 즉, 건강한 가족은 가족원 개개인의 자아개발 성취와 더불어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적 유대성이 균형있게 유지되어야 한다(권대희 · 오윤자, 2004).

또한 가족건강성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가족건강성 개념정의와 특성탐색 및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와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그리고 가족건강성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서하진, 2009).

첫째, 가족건강성 개념정의와 특성탐색 및 척도개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대한 연구(어은

주 · 유영주, 1995; 유영주, 2004; 최선희, 1999)가 대표적이다. 또한 건강가족의 특성에 대해서 가장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연구를 해온 DeFrain (1999)은 전 세계 27개국의 21,000가족 이상을 조사한 연구에 근거하여 건강가족의 특성으로서 헌신, 긍정적 의사소통, 정서적 안녕, 감사와 애정, 질적 시간 공유,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여섯 가지 요인들을 제안하였다(Stinnett & DeFrain, 1985; DeFrain, 1999).

둘째,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명자(2004)의 연구에서는 전통적 친족의식과 전통적 효도관을 지닌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일-가족 갈등과 가족건강성도 부분적으로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전서영 · 박정윤 · 김양희, 2008), 가족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이지원, 2007; 이창호, 2007). 최근들어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가족건강성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한부모가족의 경우 개인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이 가족건강성에 큰 영향력을 준다는 연구결과(현은민 · 임보래 · 장경문, 2006)가 있으며, 결혼이민여성의 우울이 가족건강성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조사한 연구(전혜정 외 3인, 2009)도 발표되고 있다.

셋째, 가족건강성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인식은 결혼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조은수, 2007), 청소년과 대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권대희, 2003; 서하진, 2009; 오정옥, 1999; 이지형, 2006). 또한 가족의 건강성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력에도 영향을 미쳐, 학교에서의 또래관계뿐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주 · 황기아, 2007; 안인영, 2005; 이혜경, 2008; 임정아 · 이인수, 2006).

가족건강성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볼 때, 가족건강성은 가족 내 개인뿐 아니라 외부환경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으므로 건강하고 행복한 개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건강한 가족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가족개념과 가족건강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와 청주시의 2곳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08명을 대상으로 가족개념(형태적, 기능적 의미), 가족건강성을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총 250부를 조사하여, 부실 기재된 42부의 질문지를 제외한 20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남학생 집단보다는 여학생 집단이, 만 20세에서 만 25세 이하 집단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1학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66.3%) 그렇지 않은 경우(33.7%)보다 많았으며,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월소득수입이 있는 가족이 36%로 가장 많았다. 핵가족이 확대가족보다 훨씬 많았고, 가족 구성원이 4명인 경우(51.0%)와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47.6%)가 다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N=208)

변수	구분	빈도(%)
성별	남	49(23.6)
	여	159(76.4)
연령	만 19세 이하	94(45.2)
	만20세~만 25세 이하	100(48.1)
	만 26세 이상	14(6.7)
학년	1학년	83(39.9)
	2학년	43(20.7)
	3학년	36(17.3)
	4학년	46(22.1)
종교	기독교	61(29.3)
	천주교	23(11.1)
	불교	39(18.8)
	기타종교	15(7.2)
	무교	70(33.7)
가족월수입	100만원 이하	13(6.3)
	100만원-200만원	75(36.0)
	200만원-300만원	55(26.4)
	300만원-400만원	42(20.2)
	400만원 이상	23(11.1)
가족형태	핵가족	183(88.0)
	확대가족	25(12.0)
가족원수	1명	1(0.5)
	2명	5(2.4)
	3명	25(12.0)
	4명	106(51.0)
	5명	52(25.0)
	6명	14(6.7)
	7명이상	5(2.4)
출생순위	장남, 장녀	99(47.6)
	둘째	39(18.8)
	셋째이하	4(1.9)
	막내	49(23.6)
	독자, 독녀	17(8.2)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이용한 척도는 크게 3가지로 우선 가족개념은 형태적 의미로 알아보는 '가족구성의 다양성 수용 척도'가 있으며, 기능적 의미로 알아보는 '가족기능 요구도' '가족기능 수행도 평가' 척도를 각각 가족성원을 위한 부분과 사회를 위한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건강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건강성' 척도를 이용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2>과 같다.

(1) 가족구성의 다양성 수용 척도

가족의 형태적 개념을 알아보는 본 척도는 가족구성의 다양성을 얼마나 수용하는지 파악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유계숙 · 유영주(2002)의 척도를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20가지 구성의 다양한 성원 및 관계에 대하여 응답자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선택한 후 그 수를 합산한 것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다양한 성원들의 구성 및 관계를 가족의 범주에 수용함을 의미한다.

(2) 가족성원과 사회를 위한 가족기능 요구도 및 수행도 평가

가족의 기능적 개념을 알아보는 본 척도는 김주수 · 김희배(1986), 유영주 · 김경신 · 김순옥(1996), 유계숙(2004)이 제시한 가족의 기능 개념을 기초로 문항들을 수정 ·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가족기능 요구도 및 수행도 평가 측정은 가족성원을 위한 부분과 사회를 위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문항구성은 가족성원을 위한 가족기능의 요구도 측정 11문항, 가족기능 수행도 평가 11문항, 사회를 위한 가족기능 요구

도 측정 6문항, 가족기능 수행도 평가 6문항으로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의 요구도 및 수행도 평가가 높음을 의미한다.

(3) 가족 건강성 척도

가족 건강성 척도는 한국가족이 제시하는 건강한 가족의 특성과 외국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특성을 중심으로 제작된(어은주 · 유영주, 1995) 가족의 건강성 척도를 이용했다. 본 척도는 가족원간의 유대감(10문항), 가족원간의 의사소통(9문항),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6문항), 가족원간의 가치공유(9문항) 등 4개의 하위영역,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 수준도 높음을 의미한다.

〈표 2〉 측정도구의 신뢰도

변수	Chronbach's α
가족구성의 다양성 수용도	.849
가족성원을 위한 가족기능 필요성	.803
가족성원을 위한 가족기능 수행도	.797
사회를 위한 가족기능 필요성	.804
사회를 위한 사회기능 수행도	.800
가족건강성	.962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설계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빈도분석, t- 검증, 분산분석, 상관관계 분석 등 알맞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3. 연구문제

이상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개념(형태적 의미, 기능적 의미)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가족개념의 형태적 의미의 경향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가족개념의 기능적 의미(가족성원, 사회를 위한 가족기능 요구도 및 수행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이 인식하는 기능적 의미의 가족개념과 가족건강성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기능적 가족개념과 가족건강성의 전반적인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가족기능 수행도 평가(가족성원, 사회를 위한)와 가족건강성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개념

1) 형태적 가족개념

가족형태에 따라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가족개념을 살펴보고자 20가지 다양한 관계의 구성형태에 대하여 가족으로 규정한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고 순위를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전체 문항 중 '부부와 그들이 낳은 자녀(문항 1)'를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대학생이 가장 많아(99.0%) 핵가족이 가장 일반적인 가족형태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50% 이상이 '가족'으로 인식한 관계의 구성형태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부부와 그들이 낳은 자녀(문항 1)'를 비롯하여, 입양가족(문항 17, 문항 3), 재혼가족(문항 9), 한부모 가족(문항 2), 남편을 사별한 딸, 손녀와 함께 거주하는 3세대 가족(문항 4), 함께 거주하는 세자매(문항 7), 정자은행을 통해 출산한 아들과 함께 거주하는 미혼여성(문항

19), 무자녀 별거가족(문항 13), 함께 거주하는 사촌형제(문항 11), 이혼한 남성과 자녀가 있는 여자친구(문항 15), 동성애 가족(문항 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혈연, 결혼 중심의 '가족'개념을 가장 많은 응답자가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외 입양, 재혼 등의 가족형태는 전통적인 가족구성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역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형태의 범위 안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한부모 가족, 3세대 가족, 동거하는 세자매 가족, 함께 거주하는 사촌형제, 무자녀 별거가족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여, 그 역시 넓은 범위로 혈연관계가 존재하며, 같이 거주하는 집단을 우선적으로 가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사회에서 정의하는 형태적 가족개념은 과거처럼 부부와 그들이 낳은 자녀로만 구성된 핵가족만을 고수하는 단일적 개념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된 형

〈표 3〉 가족수용 가능성 인식도(형태적 의미)

	다양한 관계의 구성 형태	가족 규정 빈도	백분율 (%)	순위
1	부부와 그들이 낳은 자녀	207	99.0	1
2	세 살배기 아들과 함께 사는 편모	183	87.6	5
3	어렸을 때 자신을 입양한 노모와 함께 사는 52세의 중년 여성	192	91.9	3
4	시집가서 남편을 잃은 딸과 외손자와 함께 사는 할아버지	183	87.6	6
5	남편과 사별하고 애완견을 키우며 사는 84세의 할머니	83	39.7	17
6	나와 단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 나의 조상들	59	28.2	19
7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세 명의 중년 자매들	173	82.8	7
8	레즈비언(동성애) 커플과 함께 사는 그들의 아이들 (한 여성의 아이는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이고, 다른 한 여성의 아이는 한 때 동거했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임)	109	52.2	12
9	각자 전 배우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데리고 재혼한 부부 (아이들끼리는 서로 이복/이부 형제간임)	191	91.4	4
10	계부와 그가 동거하는 여성과 함께 사는 아이 (아이의 생모는 전남편인 생부와 이혼하고 현재의 계부와 재혼했으나 2년전 병으로 사망했음)	104	49.8	13
11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촌간의 두 남성	143	68.4	10
12	어릴 적 친구와 한 집에서 사는 77세의 할머니	79	37.8	18
13	한국과 미국에서 떨어져 사는 자녀가 없는 부부	148	70.8	9
14	사별한 남편의 육촌 여동생과 한 집에 사는 미망인	97	46.4	15
15	이혼한 남성과, 그가 사귀고 있는 여성과, 그녀가 키우고 있는 전남편의 아이(이 남성은 그녀와 재혼하면 아이를 함께 키울 결심임)	129	61.7	11
16	2년 전 교통사고로 함께 죽은 부부(자녀는 없었음)의 양가 부모들	102	48.8	14
17	입양한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과 함께 사는 노부부	193	92.3	2
18	서울 근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6명의 성인과 12명의 아이들	93	44.5	16
19	정자은행을 통하여 출산한 아들과 함께 사는 미혼 여성	171	81.8	8
20	연애만 하며 혼자 사는 독신남	39	18.7	20

태를 수용함에 있어 부부 또는 부모-자녀관계를 가족 구성의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개념은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으로 응답자 50%이상이 동의하는 결과중에서도 점점 다양한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연구결과도 볼 수 있었다. 그러한 문항들로 '정자은행을 통해 출산한 아들과 함께 거주하는 미혼여성(문항 19)'와 '이혼한 남성과 자녀가 있는 여자친구(문항 15)', '동성애 가족(문항 8)'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반드시 결혼을 통하지 않아도, 반드시 이성관계가 아니더라고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음이 알 수 있어 가족에 대한 대학생 집단의 인식변화의 단면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성애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응답은 기존의 우리 사회에 보편적인 가치와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단순히 가족범위에 대한 영역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전체의 섹슈얼리티와 가치체계변화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가족개념 인식이 전통과 근대의 혼재가 뚜렷한 양상을 보인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김경원, 2005; 박수현, 2003; 양옥경, 2001; 이정수 · 천혜정, 2005)와 일치한다.

2) 기능적 가족개념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가족개념 중 기능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대학생들이 가족성원들과 사회를 위한 가족의 제 기능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식하는지, 그리고 현재 한국 가족이 그러한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표 5>).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사회를 위한 가족기능 관련 점수보다 가족성원을 위한 가족기능 관련 점수가 더 높았으며, 가족성원과 사회를 위한 두 영역 모두 요구도 점수가 수행도 평가점수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현재 대학생들은 가족에게 가족성원 개인을 포함한 가족을 위한 가족기능을 사회를 위한 기능보다 더 우선시하며, 그들의 기대에 비해 실제 가족이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현재 가족에게 더 많은 요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이 가족성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한 가족기능을 우선순위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애정, 정서적 지지와 유대기능'이 가장 요구가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휴식처의 기능', '자녀교육기능', '자녀양육기능', '재산보호기능', '오락 및 여가 기능', '자녀출산기능', '생산 기능', '소비기능' 순으로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의 '성적욕구의 충족기능'과 '종교적 기능'은 상대적으로 낮은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애정, 정서적 지지와 유대', '휴식처로의 기능', '자녀교육 기능', '자녀양육의 기능' 등의 상위에 있는 요구도가 높은 기능들은 기존의 연구결과(유영주. 1990; 유계숙, 2004)와 일치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현대 가족안에서 기능이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김승권 외, 2000; 함인희. 2001).

또한 경쟁적인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가족구성원들에게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즐거운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5일제 근무 보편화로 인해 증가한 여가시간을 가족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가족여가 프로그램의 실시 및 보급이 필요하다.

근시일 내에 가족을 형성할 대학생들의 '자녀출산기능'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 볼 때 현재 뿐 아니라 앞으로의 저출산율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성적

〈표 4〉 가족성원을 위한 대학생의 가족기능 요구 및 수행도 평가
(기능적 의미의 가족개념)

가족의 기능		기능에 대한 요구		가족의 기능 수행도 평가	
		평균 (표준편차)	순위	평균 (표준편차)	순위
가족 성원을 위한	애정, 정서적 지지와 유대 기능	4.63 (0.62)	1	3.48 (0.84)	7
	성적 욕구의 충족 기능	3.63 (0.85)	10	3.17 (0.78)	10
	자녀 출산의 기능	4.06 (0.78)	7	3.19 (1.08)	9
	자녀 양육의 기능	4.24 (0.77)	4	3.54 (0.96)	4
	생산 기능(수입획득 등)	4.03 (0.76)	8	3.50 (0.85)	6
	소비 기능	3.95 (0.71)	9	3.58 (0.73)	3
	자녀 교육 기능	4.39 (0.70)	3	4.02 (0.87)	1
	가족성원들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	4.17 (0.74)	5	3.63 (0.82)	2
	휴식처로서의 기능	4.61 (0.64)	2	3.53 (1.01)	5
	오락 및 여가 기능	4.10 (0.77)	6	3.28 (0.94)	8
	종교적 기능	2.98 (1.05)	11	2.92 (0.97)	11
	전체	4.07 (0.45)		3.44 (0.51)	

욕구 충족의 기능'에 대한 요구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피임법의 발달과 더불어 섹슈얼리티가 생식과 구분되어 작용(이원숙, 2008)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학생들의 경우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므로 성적욕구 충족의 기능을 가족기능이라기보다는 개인적 부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기 때문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적욕구 충족의 기능'은 배우자들간의 연결고리로서 핵심기능을 수행하며 '자녀출산기능'과 연결하여 사회의 존속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성원을 위한 가족기능 수행도 평가를 우선순위별로 살펴보면 '자녀교육기능'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현대사회에서의 가족생활을 통한 부모역할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강조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가족성원들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 '소비기능', '자녀양육기능', '휴식처의 기능', '생산 기능'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평가순위로 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애정, 정서적 지지와 유대 기능'은 요구도에 비해 낮은 수행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친밀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상호작용 및 유대감 형성이 대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성원들은 가족이 '오락 및 여가 기능'과 '자녀출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성적욕구 충족의 기능'과 '종교적 기능'은 낮은 요구도와 같이 수행 평가도 낮아 이 기능에 대한 기대 및 인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를 위한 가족기능의 요구도 중 가장 우선순위는 '사회안정화 기능'으로 나타났으며, '문화간 세대전달 기능', '경제질서 유지 기능'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안정이 사회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가족의 안정화 요구 역시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회를 위한 '종족보존 및 사회성원의 충원 기능'에 대한 낮은 요구도를

〈표 5〉 사회를 위한 대학생의 가족기능 요구 및 수행도 평가
(기능적 의미의 가족개념)

가족의 기능		기능에 대한 요구		가족의 기능 수행도 평가	
		평균(표준편차)	순위	평균(표준편차)	순위
사회를 위한	성적욕구 통제의 기능	3.72 (0.77)	6	3.14 (0.75)	6
	종족보존 및 사회성원 충원의 기능	3.81 (0.80)	4	3.30 (0.82)	3
	노동력 제공의 기능	3.75 (0.82)	5	3.25 (0.81)	5
	경제질서 유지의 기능	3.96 (0.79)	3	3.34 (0.81)	2
	문화의 세대간 전달 기능	4.07 (0.77)	2	3.26 (0.87)	4
	사회안정화 기능	4.24 (0.73)	1	3.42 (0.85)	1
	전체	3.60 (0.46)		3.28 (0.58)	

통해 대학생들은 가족의 의미를 사회구성원 충족이라는 대외적 기능의 의미보다는 개인적 의미, 가족적 의미로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력 제공 기능' 및 '성적욕구 통제 기능'은 가장 낮은 요구도를 보였다. 사회성원을 위한 가족기능의 수행도 평가가 점수가 가장 높은 기능은 요구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안정화 기능'이었으며, 다음으로 '경제질서 유지 기능', '종족보존 및 사회성원의 충원 기능', '문화의 세대간 전달 기능'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족은 사회를 위해 사회 안정화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특히 자녀출산 등을 통한 사회성원 충원기능도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문화의 세대간 전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다. 여전히 요구도와 마찬가지로 노동력 제공자와 성적욕구 통제자로서의 가족기능에 대한 수행평가는 매우 낮았다.

2. 대학생의 기능적 가족개념과 가족건강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 건강성 차이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총체적인 가족건강성 전체 점수는 3.46점(0.63)으로 중간정도 수준을 나타냈으며, 가족 월수입 변인에서만 가족건강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수입이 400만원이상일 때 가족건강성이 가장 높았으며, 100만원 ~ 200만원 일때 가족건강성을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월소득이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 나타난 기존의 연구(김순기 · 유영주. 2001; 윤세은 · 유영주, 2001; 전서영 · 박정윤 · 김양희, 200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6〉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

변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3.50(.69)
	여	3.45(.64)
t		.43
연령	만 19세 이하	3.43(.63)
	만 20세 이상-25세 이하	3.47(.65)
	26세 이상	3.66(.52)
F		.81
학년	1학년	3.46(.65)
	2학년	3.50(.58)
	3학년	3.53(.62)
	4학년	3.39(.65)
F		.77

〈표 6〉 계속

변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종교	기독교	3.47(.67)
	천주교	3.53(.60)
	불교	3.51(.57)
	기타종교	3.48(.67)
	무교	3.40(.64)
F		.90
가족 월수입	100만원 이하	3.45(.47)
	100만원- 200만원	3.31(.51)
	200만원- 300만원	3.62(.57)
	300만원- 400만원	3.50(.57)
	400만원 이상	3.65(.72)
F		2.54*
가족 형태	핵가족	3.47(.65)
	확대가족	3.37(.44)
t		.74
가족원 수	2명	2.95(1.11)
	3명	3.72(.66)
	4명	3.45(.59)
	5명	3.47(.56)
	6명	3.34(.83)
	7명 이상	3.39(.33)
F		1.77
출생 순위	장남, 장녀	3.39(.64)
	둘째	3.52(.49)
	셋째이하	3.80(.26)
	막내	3.56(.60)
	독자, 독녀	3.39(.93)
F		1.05
가족건강성 전체		3.46 (0.63)

* p<.05, **p<.01, *** p<.001

2) 기능적 가족개념과 가족건강성

기능적 가족개념과 가족건강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성원과 사회를 위한 가족 기능 요구도 및 수행도 평가와 가족건강성의 상관관계를 전반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7>와 같다.

분석 결과 가족 기능 요구도 및 수행도 평가 모두 가족건강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가족기능과 가족건강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가족에 대해 관심이 많고 욕구가 높으며, 가족기능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경우 가족건강성과 정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족성원을 위한 가족기능 수행도 평가 항목이 가족건강성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대학생들은 가족성원을 위해 가족이 충분히 기능한다고 여길 때 본인의 가족을 더욱 건강한 상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족 기능 수행도 평가와 가족건강성

가족성원과 사회를 위한 가족 기능 수행에 만족할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어떤 기능이 가족건강성 증진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가족기능에 대한 실제적 측면인 평가부문만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항목을 포함하여 가족건강성과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결과는 다음 <표 8>, <표 9>과 같다. 가족기능 수행도 평가는 가족성원을 위한 영역과 사회를 위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성원을 위한 가족기능 수행도 평가에서 성적욕구 충족기능과 자녀출산기능을 제외하고는 가족건강성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표 7〉 기능적 가족개념과 가족건강성의 전반적 상관관계

변수	가족성원을 위한		사회를 위한	
	가족기능 요구도	가족기능 수행도 평가	가족기능 요구도	가족기능 수행도 평가
가족건강성	.254***	.341***	.295***	.259***

* p<.05, **p<.01, *** p<.001

〈표 8〉 가족성원을 위한 가족기능 수행도 평가와 가족건강성

변수	애정 정서적 지지와 유대	성적 욕구 충족	자녀 출산	자녀 양육	생산 기능	소비 기능	자녀 교육	가족 성원과 재산 보호	휴식처 기능	오락 및 여가	종교적 기능
애정, 정서적 지지와 유대	1										
성적 욕구 충족	.232***	1									
자녀 출산	378***	.152*	1								
자녀 양육	354***	.145*	590***	1							
생산 기능	302***	226***	.461***	.593***	1						
소비 기능	330***	.189**	273***	547***	.636***	1					
자녀 교육	.173*	.050	.112	.357***	.366***	.529***	1				
가족 성원과 재산 보호	249***	257***	.161*	.285***	.271***	.379***	454***	1			
휴식처 기능	.425***	.067	248***	.374***	.220***	.318***	.311***	.387***	1		
오락 및 여가	336***	.131	.218**	.212**	.160*	.216**	.154*	.271**	.694**	1	
종교적 기능	.005	.056	.124	-.001	.064	.043	.138*	.097	.135	.248***	1
가족 건강성 평균	.312***	.109	.067	.178**	.159*	.162*	.172*	241***	270***	.280***	221***

* p<.05, **p<.01, *** p<.001

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성원을 위한 '애정, 정서적 지지와 유대 기능'을 우선으로 '가족성원과 재산 보호 기능', '휴식처 기능', '오락 및 여가 기능', '종교적 기능' 순으로 가족건강성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전한 환경에서 친밀한 정

〈표 9〉 사회를 위한 가족기능 수행도 평가와 가족건강성

변수	성적 욕구 통제	종족 보존	노동력 제공	경제 질서	문화의 세대간 전달	사회 안정화 기능
성적욕구 통제	1					
종족보존	.270***	1				
노동력 제공	.310***	.509***	1			
경제 질서 유지	.310***	.357***	.460***	1		
문화의 세대간 전달	.303***	.295***	.275***	.538***	1	
사회 안정화 기능	.068	.205**	.170	.246***	.124	1
가족 건강성 평균	.086	.174	.129	.205**	.190**	.197**

* p<.05, **p<.01, *** p<.001

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편안한과 즐거움을 느끼며 가족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있고, 종교적 공동체의식을 느낄수록 가족이 건강한 관계라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적욕구 충족기능'과 '자녀출산 기능'이 가족건강성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는 자녀출산은 이제 선택적 개념으로 자녀유무에 따라 가족의 행복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대학생들의 인식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성적욕구 역시 가족적 측면이기보다는 개인적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가족성원을 위한 가족기능 요구도 및 수행도 평가에서 낮은 인식도 결과를 보인 종교적 기능이 가족건강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오늘날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퇴되고는 있으나 가족원들의 공동체적 신앙 욕구 충족이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건강의 개념에 영적 (spiritual) 정신상태도 양호해야 한다는 논의(Fliopoulos, 1990; 이선자 외 재인용, 2000)와 일맥상통한다.

사회를 위한 가족기능 수행도 평가와 가족건강성의 상관관계 결과 '경제질서유지 기능', '문화의 세대간 전달 기능', '사회 안정화 기능'에서만 가족건강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가정 경제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경제질서에 일조를 한다고 인식하고, 더불어 사회안정화에 기여하며, 가족문화가 존재하면서 커다란 갈등 없이 세대간 전수가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여길 때 건강한 가족관계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최근 건강가족형성을 위한 가족문화 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문화를 지도하는 자격증을 신설하는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를 위한 가족기능 수행도 평가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이 약한 것은 가족성원을 위한 가족기능 수행정도에 대한 인식이 가족건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박수현, 2003:서울시 건강가족정책기본계획 연구보고서, 2006; 유계숙 · 유영주, 2002)와 일치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가족개념의 형태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대학생들의 가족인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가족개념과 가족건강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봄으로

써 예방적 차원에서 출생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미래가족의 중심이며 새로운 가족문화를 형성할 대학생들에게 가족의 중요성 인지는 물론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둔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 인식하는 가족형태에 따라 가족개념을 살펴본 조사결과 전체 문항 중 '부부와 그들이 낳은 자녀'를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대학생이 가장 많아(99.%)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가장 일반적인 가족형태로 여기고 있었고, 재혼가족, 입양가족, 한부모 가족, 3세대 가족, 동거하는 세자매 가족, 함께 거주하는 사촌형제, 무자녀 별거가족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여 넓은 범위로 혈연관계가 존재하며 같이 거주하는 집단을 우선적으로 가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가 기존의 연구(유계숙, 유영주, 2002)와 차이가 있는 점은 정자은행을 통해 출산한 미혼여성 경우나,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 동성애 경우까지 가족으로 포함하고 있어 가족개념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규범적 성역할 개념도 변화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가족을 '시간을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회변화에 민감한 체계'로 볼 때(Carter & McGoldrick, 1999), 변화하는 사회현상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는 가족이 더 문제라고 여겨진다. 이제 가족의 변화는 위기가 아닌 자연스러운 발전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학교와 사회에서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본격화하여야 하며, 교육내용도 인지적·개념적 차원의 지식전달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가치규범 및 행동지향적 차원의 다양성을 수용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족해체론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유지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알 수 있다. 또한 그 가족은 정형화된 폐쇄체계가 아니며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개방체계로서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양옥경(2000)은 지금이야 말로 현재의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미래의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상을 제시할 때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 중 하나로 현재 공존하고 있는 개인주의와 가족주의의 발전적 통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둘째, 가족성원과 사회를 위한 가족기능 요구도 및 수행도 평가의 일반적인 경향에서는 가족성원을 위한 가족기능 관련 점수가 사회를 위한 것보다 높았으며, 가족성원과 사회를 위한 가족기능 수행도 평가가 요구도 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가족개념이란 가족성원을 위한 부분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가족이 요구에 비해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족이 필요로 하나 그에 대한 수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기능들은 모두 가족생활의 질을 저하시키고 가족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기능수행을 위한 예방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생들이 가족성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요구한 가족기능은 '애정, 정서적 지지와 유대기능' 이었으나 평가수행결과에서는 낮은 수치를 보여 점점 다양한 가족을 지칭하는 families의 개념으로 가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가족내부에만 이런 기능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가족외부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이 기능을 수행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장 대표적인 외부기관으로 이제 가족을 위해서는 환경

적, 거시적인 접근뿐 아니라 관계적 접근까지 포함할 수 있는 실천적,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생태학적 실천을 기반에 둘 필요가 있는데 가족의 건강성이 자아존중감, 우울감 등의 개인적 차원 수준뿐 아니라 학교, 일-가정 양립에도 영향을 받는 등 다차원적인 영역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개인 및 가족과 관련된 모든 환경에서의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지역이 전국적 규모가 아니기에 실제적인 파악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전국적 규모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개념을 파악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형태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로 나누어 분석하였지만 가족건강성과의 관계를 알아볼 때는 형태적 의미는 설문구성상 가족건강성과의 상관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기능적 의미만을 사용하였다. 가족개념이 가족건강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직,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 다음 조사에서는 상관관계 분석이 가능한 형태적 의미의 가족개념 설문을 함께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가족개념과 가족건강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가족개념은 세대간의 차이가 매우 클 것으로 여겨지므로 세대간의 가족개념 차이를 알아보고 이것이 가족건강성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대가 서로 인식하는 가족의 형태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가 다르다면 한 울타리 안에서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갈등요소를 갖고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여겨진다. 가족전체의 가족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세대간의 차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고정자(2004). 가족개념인식과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논문집 12, 5-18.
2) 권대희(200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권대희, 오윤자(2004).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15-127.
4) 김경원(2005). 가족복지 실천을 위한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5) 김규원(1995).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가족학논집 7, 213-255.
6) 김명자(2004). 부모와 대학생 자녀의 가족생활에 관한 가치의식과 가족건강성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55-80.
7) 김설희(1983). 청소년을 통해 본 앞으로의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김수연, 김득성(1997a). 가족의 응집 및 적응 평가척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59-74.
9) 김수연, 김득성(1997b). 가족의 응집 및 적응 척도에 관한 연구Ⅱ. 대한가정학회지 35(6), 205-219.
10) 김순기, 유영주(2001). 노인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서울시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가족연구, 385-421.
11) 김유숙(2006). 가족치료. 서울 : 학지사.

12) 김주수, 김희배(1985). 가족관계학. 서울 : 학연사.
13) 남기철(2006). 가족개념과 가족복지서비스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 생활과학연구 11, 91-106.
14) 박길성(1997). 정보사회, 정보문화, 새로운 과학문화의 도전과 그 극복.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결과보고서.
15) 박민자(1995). 가족의 의미. 한국여성사회연구회 편.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 경문사.
16) 박민주, 황기아(2007).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10(2), 43-51.
17) 박수현(2003). 대학생의 가족개념인식 및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서울시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서하진(200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생활복지주거학과 석사학위논문.
19) 안인영(2005).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과 우울과의 상관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양옥경(2001). 가족개념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 175-199.
21) 어은주(1996). 한국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 연구-자녀교육기 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2) 어은주, 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23) 오윤자, 조소연(2001). 부모의 가족가치관 및 관련변수가 미혼성인자녀의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271-284.
24) 오정옥(1999). 가족건강성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회지 4(2), 153-172.
25) 옥선화(1995). 가족의 위기와 전망. 한국가족학회편. 한국 가족문제: 진단과 전망. 서울 : 하우.
26) 유계숙(2004). 건강가족의 요소에 관한 연구- 가족체계와 건강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25-42.
27) 유계숙, 유영주(2002). 서울시민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5), 79-95.
28) 유영주(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29) 유영주, 김경신, 김순옥(1996). 가족관계학. 서울 : 교문사.
30) 윤세은, 유영주(2001).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서울시 남녀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건강가족연구, 273-312.
31) 윤종희(2006). 건강가정사업에서 가족-중심 개입을 위한 개념모형 연구: 생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44(3), 115-126.
32) 이선자, 장숙랑, 권영숙(2000). 농촌거주 장애인의 재가복지 및 간호서비스 요구도 조사.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190-191.
33) 이선정(2009). 대학생의 가족건강성 및 관련 변인이 부모됨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243-266.
34) 이원숙(2008). 가족복지론. 서울 : 학지사.
35) 이정수, 천혜정(2005). 예비 가정과 교사의 가족개념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9(4), 63-80.
36) 이지원(2007). 가족자원봉사활동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7) 이지형(2006). 대학생이 인지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8) 이창호(2007). 교회에서의 가족자원봉사활동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39) 이혜경(2008).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40) 임정아, 이인수(2006). 청소년기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연구. 한국아동교육학회 15(2), 37-62.
41) 장경섭(2009). 가족·생애·정치경제-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서울 : 창비.
42) 재단법인 서울여성(2006). 서울시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 보고서.
43) 전서영, 박정윤, 김양희(2008). 기혼남녀의 일- 가족 갈등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3), 55-79.
44) 전혜정, 민성혜, 이민영, 최혜영(2009). 결혼이주여성 가족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국가족자원복지학 14(2), 5-27.
45) 정성란(2005). 가족기능증진 프로그램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46) 정순복, 김수진(2001). 일 도시 중학생의 가족기능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0, 352-367.
47) 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함께 가는 가족 2010. 관계부처 합동 2006. 11 발행.
48) 조은수(2007).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관 및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가정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49) 최선희(1999). 한국인의 가족 건강성 영역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50) 최희진, 유영주(1999). '가족기능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Tavitian, Lubiner, Grebstein, Velicer의 가족기능도 척도(FFS)에 기초하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57-71.
51) 함인희(2001). 한국 사회의 산업화와 가족변화.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 경문사.
52) 현은민, 임보래, 장경문(2006). 한부모가족의 건강성 관련 특성과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4), 23-38.
53) 홍은표(1984). 한국도시가족원의 가족 기능에 대한 기대도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4) 인터넷 참여연대(2006).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을 위한 보도자료. http://www. 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8304.
55) Carter, B. & McGoldrick, M.(1999). Overview: The Expanded family life cycle:Individual, Family, and Social Perspectives. Massachusetts : Allyn & Bacon.
56) Otto, H. A.(1962). What is Strong Family? *Marriage and Family Living 24*, 77-80.
57) Stinnett, N. & DeFrain, J.(1985). Secrets of strong families. Boston: Little, Brown & Co.
58) Walsh, F.(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Y : Guilford Press.

■ 투 고 일 : 2010년 1월 1일
■ 심 사 일 : 2010년 1월 8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2월 18일